



MBC 라디오의 '책 나누기 파티' 책과 공연의 결합, 책과 함께 마음을 나누자!

지난 12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특별한 '책 나누기 파티'가 벌어졌다. 삼삼오오 무리 지은 중·고등학생들이 한 손에는 헌책을 들고 MBC가 마련한 특설무대의 객석에 속속 도착했다. 학생들이 입구의 진행요원에게 자신들이 들고 온 헌책을 주자 진행요원은 출판사와 책명이 적힌 티켓을 주었다. 티켓을 받아 들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객석 양 옆 출판사별로 늘어선 서가에서 자신에게 추천된 책을 받아들었다. 책을 받아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새 책을 안은 행복과 곧 시작될 공연을 기다리는 설렘이 동시에 번졌다.

이번 행사는 '책과 함께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로 MBC라디오에서 마련한 책 파티 겸 공개방송이었다. 일단 MBC홈페이

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공연티켓을 배부하고, 행사 당일 그들이 가져온 헌책과 각 출판사에서 제공한 새 책을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책 나누기 파티와 공연, 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책 나누기를 한 다음, 6시부터 9시까지 공연이 이루어졌다.

“공연도 볼 수 있고, 새 책도 얻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공개방송을 보러 왔을 때보다 보람도 있구요. 내가 가져온 헌책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쓰인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고3인데 언어영역과 관련된 수능서를 받아서 기쁘다는 성북고등학교 김수지 양의 말이다. 책 파티의 의미가 '나눔'에 있는 만큼, 행사에 참가한 20여 개의 출판사는 각기 300~500

권의 책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학생들이 가져온 헌책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할 계획이다.

한편, 객석 양 옆으로 마련된 출판사별 서가에서는 각 출판사의 홍보팀이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주며 자신들의 출판사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비록 자신이 추천한 출판사가 아니라도 출판사별 서가를 돌아보며 전시된 책을 보고, 그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행사에 참가한 출판사들의 종류도 다양해 '문학사상사' 같은 문학 전문 출판사가 있는가하면 '좋은책' 같은 수능도서 전문 출판사도 있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샘터 출판사의 이만근 씨는 "책을 나누는다는 취지가 좋아서 함께하게 되었다"며 "책을 읽지 않는 요즘의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MBC라디오의 남태정 PD는 "어린 시절 했던 '책거리'의 흥겨움을 현대적으로 가려오려고 노력했다"며 "책에 관한 유의미한 행사가 거의 없는 요즘, 이런 행사가 청소년과 책을 좀 더 가깝게 하는 계기도 되고, 책에 관한 더욱 실질적인 행사가 많이 생기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현대적 '책거리' 파티 통해 '나눔'의 정신 살리는 계기가 되길

'책과 공연의 결합'이라는 전례 없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남태정 PD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책거리'의 흥겨움을 오늘날의 아이들에게도 알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 아이들과 책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랐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남 PD를 만나 이 특별한 '책 나누기 파티'에 관한 얘기를 잠시 들어보았다.



Q. 책과 공연의 결합이라는 것이 신선하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나.

"보통 하듯이 가수들의 공개방송으로 하는 연말 특집이 아닌, 의미 있는 특집을 만들고 싶었다. 그렇다면 책과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어린 시절 했던 '책거리'가 떠올랐다. 헌책을 물려주고, 새 책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책거리의 흥겨움을 살려서 현재의 아이들도 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Q. 출판사들은 무상으로 새책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가게에 헌책을 기증하기로 했다는데.

"일단 각 출판사들에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부탁하는 공문을 돌렸다. 이런 행사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출판사도 있었지만 흔쾌히 도와준 출판사들이 더 많았다. 당초 생각보다 더 많은 출판사들이 참여했고, 많은 책이 쌓여서 기쁘다. 아름다운 가게 쪽과도 얘기가 잘 되어서, 모인 헌책은 그곳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Q. 추천을 통한 방식이라는 것이 특별하다.

"기본적으로는 '책거리'를 현대적으로 가져오면서, '나눔'의 취지를 살리려고 애썼다. 추천을 통해서 받은 책이 원하는 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하는 책이 아니어도 방향을 맞춘 아이들이 연말에 그 책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책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할 계획인가.

"일단은 무사히 이 공연을 마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이 잘 되어야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아닌가.(웃음) 올해는 처음이라 출판사 측에도 홍보가 될 뉘 부분이 없지 않다. 또한 전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출판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행사가 계속되면 보다 실질적인 책에 관한 좋은 행사들이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민**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